

코로나 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교내임상실습 불안,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김도희¹, 이원진^{2*}, 강민지¹, 강지연¹, 김나래¹, 김서영¹, 김성아¹, 박성은¹, 배선미¹

¹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²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Relationships among Nursing Students' Anxiety, Communication Skill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bout On-campus Clinical Practice due to COVID-19

Do-Hui Kim¹, Won-Jin Lee^{2*}, Min-Ji Kang¹, Jee-Yeon Kang¹, Na-Rae Kim¹, Seo-Yeong Kim¹,
Seong-A Kim¹, Seong-Eun Park¹, Sun-Mi Bae¹

¹Student, 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대체 교내임상실습 수행으로 인한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 4학년 131명이며, 자료는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불안과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32, p<.001$).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64, p=.000$).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교내임상실습으로 인한 불안을 감소시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의 중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교내임상실습,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communication skill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due to the replacement on-campus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due to the COVID-19 outbreak.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1 nursing students in 3rd and 4th grade,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30, 2021 to November 23, 202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Statistics 28.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rson's corre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nxie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r=-.332, p<.001$),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r=.364, p=.000$). Based o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ffective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tervention method that can reduce anxiety caused by on-campus practice to enha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nhance communication ability. Based o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de level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o develop and apply an effective anxiety intervention method that can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by reducing anxiety caused by on-campus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On-campus practice, Anxiety,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Won-Jin Lee(leewj@hit.ac.kr)

Received June 10,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Revised September 20,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코로나 19(COVID-19)는 2020년 1월 20일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19 해외유입 확진자를 통해 유입되어 확산하기 시작했다[1]. 코로나 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대학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길 권고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2]. 이는 간호학과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특히 임상실습은 실습 병원에서 환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보류하거나 중단을 요청했고 감염 관련 불안을 호소하여 비대면 실습으로 변경되었다[2]. 교육부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도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의 교육과 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3,4]. 이렇게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의 불확실성 동안 실행되는 원격 수업과 임상실습 누락에 대해 간호 학생들은 불안을 포함해 공황장애, 우울 등 각종 심리 사회적 및 정신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임상실습 현장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서의 실제 연습을 통해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임상 실무능력이 높은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 임상실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는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에서도 대상자, 보호자, 의료진 등과 의사소통함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6]. 간호대학생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소통능력을 임상실습을 통해 각계각층의 대상자들과 치료적으로 관계 형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은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핵심역량이다[7].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 상황으로 실습 장소가 임상이 아닌 교내로 진행되면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교내임상실습 대체로 인한 불안과 의사소통능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시 최신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성과, 윤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어 다른 큰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위를 얻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다[8]. 더불어 간호의 전

문성은 폭넓은 개인의 특성, 자기 규제, 전문적 가치관, 전문지식, 전문적 상호작용, 법적 책임, 소속감, 전문적 발전 창출에 힘쓰는 것에 의의가 있다[8].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핵심으로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면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9].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동안 나타나는 여러 스트레스로 인하여 취업 후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감을 잃게 하고 간호학 전공에도 심각한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여 지속적인 임상실습을 시행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 임상실습의 기회가 감소하여 간호전문직관을 확고히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교내임상실습 대체로 인한 불안과 간호전문직관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의료현장의 여러 전문인과의 조화 속에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뤄진다[10]. 하지만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교내임상실습 대체는 간호대학생을 임상 상황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이 아닌 강의 중심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기에 제한적이고[7], 이는 간호사의 이미지, 역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한국 간호대학생의 간호 실무에 대한 교내임상실습과 현장학습 차이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나 교내임상실습의 실체를 다루지는 않았으며[11], 코로나 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는 발견되지 않았다[5].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 시 간호대학생의 교내임상실습 대체에 대한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교내임상실습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 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교내임상실습 대체로 인한 불안과 임상 실무능력에서의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불안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 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부분 교내임상실습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D 광역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 학년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8]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0, 효과 크기 0.3으로 하였을 때 112명이 적절하였고 결과를 고려하여 134명에게 설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실습을 교내로 진행하지 않은 3명의 탈락자를 제외한 131명의 설문지가 최종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불안

불안 도구는 Spielberger의 STAI(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12]를 한국어로 변안한 도구로 상태 불안을 측정하였다[13].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문항 중 10 문항(1, 2, 5, 8, 10, 11, 15, 16, 19, 20번)은 긍정적 문항으로 역환산으로 계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고, 20점에서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변안한 도구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3이었다.

2.3.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도구는 허명륜, 임숙빈[14]이 개발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의사소통능력 도구는 총 14문항이며 ‘진정성’, ‘관계성’, ‘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14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89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15]가 개발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5개 영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29문항 중 16번, 20번, 24번 문항은 역 환산하여 계산하였고, 29점에서 1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D 광역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설문 형식을 이용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익명성 보장 및 비밀 유지가 될 것을 안내하고, 연구 시 알게 되는 참여자의 정보는 모두 연구목적으로만 활용 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동의서 작성법, 온라인 설문지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직접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접속한 첫 페이지에 연구 제목, 목적, 기대 효과, 참여 의의 등에 대해 기재하고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 해당 자료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자율적인 참여, 연구 불참여 시 불이익이 없을 것, 작성 내용의 무기명 처리, 작성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중단 가능,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탑재하였다. 또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할 때 설문을 시작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도중 문의 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연구 동의서에 전자 우편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였다. 연구 도중 알게 되는 참여자의 정보 및 설문 내용은 본 연구가 끝날 시 바로 폐기할 것이며, 만일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안내하였

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끝으로 참여해주시는 것과 모든 항목을 성실히 답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8.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검증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불안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에서 20대 112명(93.1%), 30대 5명(3.8%), 50대 4명(3.1%)로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년은 3학년이 114명(87%)이었고, 4학년이 17명(13%)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110명(84%)이었고 남학생은 21명(16%)이었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n(%)	
		Division	n(%)
Age	20-29	112	93.1
	30-39	5	3.8
	50-59	4	3.1
Grade	3rd	114	87
	4th	17	13
Gender	Male	21	16
	Female	110	84

4.2 대상자의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평균이 80점 만점에 48.75±12.08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평균이 60점 만점에 56.50±6.7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이 145점 만점에 112.08±13.4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Anxiety,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N=131)

Variables	Score(M±SD)
Anxiety	48.75±12.08
Communication ability	56.50±6.77
Nursing professionalism	112.08±13.45

M±SD: Mean±Standard deviation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나이별, 학년별, 성별에 따른 불안과 의사소통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에서 연구대상자는 학년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9, p=.023).

4.4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불안,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의사소통능력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r=-.118, p=.178). 불안과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r=-.332, p<.001).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r=.364, p=.000).

Table 3. Anxiety,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1)

Variables	Division	Anxiety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M±SD)	t/F(p)	Score(M±SD)	t/F(p)	Score(M±SD)	t/F(p)
Age	20-29	49.10±11.87	1.31 (.273)	56.27±6.83	2.50 (.086)	111.84±13.43	2.25 (.109)
	30-39	40.20±9.58		63.00±4.69		123.20±13.95	
	50-59	48.75±19.57		55.25±1.71		105.50±5.92	
Grade	3rd	48.32±12.02	-1.06 (.290)	56.60±6.57	0.44 (.662)	113.59±11.85	2.49 (.023*)
	4th	51.65±12.42		55.82±8.17		101.94±18.74	
Sex	Male	44.81±13.41	1.64 (.103)	57.14±6.73	-0.48 (.635)	111.00±14.93	0.40 (.691)
	Female	49.50±11.72		56.37±6.80		112.28±13.21	

*p<.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nxiety,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N=131)

Variables	Anxiety	Communication ability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1		
Communication ability	-.118	1	
Nursing professionalism	-.332**	.364***	1

* $p < .05$, ** $p < .01$, *** $p < .001$

5.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 시 간호대학생의 교내임상실습 대체에 대한 불안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 감소를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불안은 평균 48.75 ± 12.08 점으로 시뮬레이션 실습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평균 49.51 ± 8.60 점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2], 임상실습 불안에 대한 연구결과 평균 43.74 ± 10.18 점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였다[16]. 이러한 차이는 임상 경험 부족으로 실제 대상자를 접하지 못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적용, 의사소통 기술 학습,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미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여 나타났다고 하였다[11]. 따라서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특유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새로운 콘텐츠를 고안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해보고 실제 간호과정을 적용해보며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은 56.50 ± 6.77 점으로 70점 만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편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3.51 ± 0.34 점(최대 5점)[17]으로 높았고, 당뇨병 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4.09 ± 0.45 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18]. 이는 보건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7]. 그러나 교내임상실습 시 대상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가지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고 단순 교과목의 이론 학습이 임상에서의 수준 높은

의사소통 기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교내임상실습 중에 역할극, 영상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임상에서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3.70 ± 0.34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평균적으로 3.70 ± 0.48 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19]. 이는 임상실습에서 경험해야 하는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독자성에 대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교내임상실습에서의 부족으로 인해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기와 이론 학습이 아니라 미래의 간호사 역할의 확대, 전망, 이미지 등을 녹여내어 간호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고찰할 수 있는 교내임상실습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항목별 요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학년별로 나누어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는 3학년 3.91 ± 0.40 점, 4학년 3.51 ± 0.64 점으로 학년에 따른 전문직관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선행연구에서 3학년 3.69 ± 0.47 점, 4학년 3.48 ± 0.52 점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연구와 일치하였다[20]. 학년에 따른 전문직관 점수의 차이는 전공 교과목과 임상실습에 대한 여러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생각된다. 비교적 낮은 학년에서 간호직에 대해 고대하며 설렘을 갖고 있다가 실제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 교내임상실습으로 대체되는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임상에 대한 현실성이 낮아져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내임상실습을 임상실습과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감을 고도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은 의사소통능력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김미영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시 불안이 높을수록 이전 학습에 대한 기억이나 추론하는 것에 방해받아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임상 수행능력에도 부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차이가 나타났다[21]. 이는 본 연구가 단순히 의사소통능력에 한해 분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7] 둘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인 불안 중재 방법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불안과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성인간호학실습 분석의 선행연구 결과[22]에서 임상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쉬움과 자신의 역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이를 보완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나타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내임상실습으로 인한 불안과 간호전문직관 관계는 서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코로나 19 유행 사태로 인한 교내임상실습이 진행되는 현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불안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나타나는 간호전문직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중재법을 고려해야 하며,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자신 역량에 대한 두려움을 중재하는 방법을 특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특정 과목 실습에 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어 앞으로 다양한 실습 과목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간호전문직관 수준이 서로 상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은 대인관계의 두려움, 대인 불안과 관련되어 학업으로의 동기 상실, 임상에서의 수행능력 저하로 이어진다[6]. 더욱이 이러한 영향은 자아존중감을 낮춰 무력감을 유발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타인으로부터 사랑, 존경, 신뢰, 돌봄을 받을 때 강화된다[23]. 이는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여 학업 성취감을 얻고 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확신과 개발을 추구해 사회에서의 가치, 간호대학생으로서 정체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3]. 즉, 높은 의사소통능력 수준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문직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에서 겪는 주요 스트레스의 원인임[6]과 동시에 임상실습 현장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실습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학생의 높은 의사소통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높은 전문직

관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유행 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이 교내임상실습으로 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추출로 진행하여 조사대상자를 일개 도시의 일개 대학으로 국한하였으므로 향후 지역 범위를 넓혀 여러 지역의 간호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과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성별 인원을 일관되게 하여 학년에 따른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내임상실습 수행 불안을 감소시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임상실습교육 전 학생의 불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임상실습교육의 중재를 개발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Covid-19 (2022). COVID-19 Infectious Disease-19. <https://ncv.kdca.go.kr/ncov/>
- [2] M. J. Sim. (2021).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 Satisfaction, Learning Confidence, and Nursing Clinical Competency of In-class Practical Education due to COVID-19. *International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5(4), 553-563. DOI: 10.33097/JNCTA.2021.05.04.553
- [3]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2020). *Safety management guide for field training in medical institutions for covid-19 prevention*. <http://ncov.mohw.go.kr>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20). Guide on how to apply the nursing education certification evaluation standard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 http://www.kabone.or.kr/kabone/ci.do
- [5] N. B. Dastan, F. Kaya, O. T. Uluman & N. Kiransal. (2021). Psychosocial and Mental Effects of Covid-19 Pandemic on Nursing Students in Turkey: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14(3), 1900. DOI : 10.1007/s12144-021-01674-y.
- [6] E. Y. Yeom. (2017).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320-330. DOI : 10.5392/JKCA.2017.17.04.320
- [7] I. Y. Cho. (2015).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skill,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related educational nee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593-2601. DOI : 10.5762/KAIS.2015.16.4.2593
- [8] A. Azemian, A. Ebad & L. Afshar, (2021). Redefining the concept of professionalism in nursing: an integrative review. *Frontiers of Nursing*, 8(4), 327-340. DOI : 10.2478/fo-n-2021-0033
- [9] H. J. Park & J. W. Oh. (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DOI : 10.14400/JDC.2014.12.12.417
- [10] O. H. Koo. (2021). The Influ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0), 346-356. DOI : 10.5762/KAIS.2021.22.10.3
- [11] H. S. Kim, E. M. Kim & D. S. Lee.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2), 169-178. DOI : 10.5762/KAIS.2021.22.2.1
- [12] C. D. Spielberger (196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anxiety research.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481-493.
- [13] J. T. Kim & D. K. Shin.. (1978). STAI's studt on Korean Standardization. *Modern Medicine*, 21(11), 69-75.
- [14] M. L. Heo & S. B. Lm. (2019). Development of the patient caring communication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80-91. DOI : 10.4040/jkan.2019.49.
- [15] E. J. Yeun, Y. M. Kwon & O. H. Aha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16] E. Y. Kim & S. H. Yang. (2015).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17-425. DOI : 10.11111/jkana.2015.21.4.417
- [17] S. K. Hwang & Y. J. Lee. (2015).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518-527. DOI : 10.5977/jkasne.2015.21.4.518
- [18] B. Y. Kim & E. S. Lee. (2018). Effects of a simulation practicu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communication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Diabetic car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2), 91-100. DOI : 10.14370/jewnr.2018.24.2.91
- [19] H. K. Lee, H. W. Chol, M. J. Kim, Y. S. Kim, J. S. Kim, D. I. Park, S. H. Jung, S. H. Jung & Y. S. Chol. (2022).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Anxie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5), 101-110. DOI : 10.22678/JIC.2022.20.5.101
- [20] S. A. Whang. (2022).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5(1), 32-39. DOI : 10.5977/JKASNE.2011.17.3.536
- [21] M. Y. Kim, S. Park & J. Won. (2016).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anxiety during simulation training on personal satisfaction of simulati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4), 411-418. DOI : 10.7739/jkafn.2016.23.4.411
- [22] S. H. Lim. (2021).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ctact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 195-205. DOI : 10.5762/KAIS.2021.22.4.195
- [23] K. S. Cho. (2020).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7(2), 142-152. DOI : 10.5953/JMJH.2020.27.2.142

김도희(Do-Hui Kim)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응급간호, 중환자간호
- E-Mail : kdhdh1215@naver.com

김서영(Seo-Yeong Kim)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보건
- E-Mail : mongle0130@naver.com

이원진(Won-Jin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임상전문간호 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성인간호학 박사)
- 2021년 8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간호교육
- E-Mail : leewj@hit.ac.kr

김성아(Seong-A Kim)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아동간호, 성인간호
- E-Mail : dhwhdfks@naver.com

강민지(Min-Ji Kang)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호스피스간호
- E-Mail : minchi51@naver.com

박성은(Seong-Eun Park)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중환자간호, 노인간호
- E-Mail : 325tjddms@naver.com

강지연(Jee-Yeon Kang)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보건
- E-Mail : jeeyeon0511@naver.com

배선미(Sun-Mi Bae)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간호, 보건
- E-Mail : qotjsal00@naver.com

김나래(Na-Rae Kim)

[학생회원]



- 2019년 3월~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생
- 관심분야 : 투약, 간호
- E-Mail : god2733@naver.com